

1인 가구의 세대별 여가행태 분석*

The Leisure behaviors of single households in Korea
: A generational analysis

가톨릭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교수 정영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윤소영***

The Catholic Univ. of Korea, Consumer & Housing Studies
Professor Jeong, Yeongkeum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Research Fellow Yoon, Soyoung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논의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eisure behaviors of single households in Korea on the basis of generation, and identify leisure characteristics or factors that influence levels of happiness in these households. The sample comprised 1,144 single householders, among whom 74 belong to the teenage generation, 288 are of the eco generation, 154 belong to generation X, 104 are baby boomers, and 524 are of the older generation. Various leisure characteristics were compared across the generations, namely, conditions for leisure, degree of leisure participation, level of work-leisure balance, persistence of participation, and type of activity. Results showed differences in leisure characteristics and leisure factors that influence levels of happiness among the generations.

Key Words : 1인가구 (single households), 세대비교 (comparison of generations), 여가행동 (leisure behavior), 행복수준 (level of happiness)

* 본 논문은 2018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2018년도 가족자원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주저자 : 정영금(jeongyk@catholic.ac.kr)

*** 교신저자 : 윤소영(soyoung@kcti.re.kr)

I. 서론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새로운 정책비전으로 내걸었다. 새 정부 출범 이전부터 ‘워라벨(Work-Life Balance)’, 즉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개인의 삶의 질’은 중요한 관심을 받고 있다. 사회발전의 척도로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은 세계적으로도 확산되고 있는데, 특히 한국사회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달성에도 불구하고 사회구성원의 삶에 대한 만족도나 행복수준이 그리 높지 않아 정책적 관심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통계개발원, 2017).

경제발전을 위한 성장 중심적 정책방향이 국민의 행복을 증시하려는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등 국민 행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저녁이 있는 삶’과 휴가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통해 여가적 삶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가를 증시하는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가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여가와 행복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연구들도 다수 진행되었다(이국희·최인철, 2018; 이명우·홍윤미·윤기웅, 2016; 김종순·오세숙·윤소영, 2016).

행복의 영향요소로서 여가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구의 대상은 세분화되는 경향을 보인다(윤소영, 2010). 은퇴기를 맞은 베이비부머의 여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그 비중이 증가하는 고령자의 여가 등 새로운 여가활동주체에 대한 연구들도 다수 진행되었다(김세진·강은나, 2017; 김윤정·이상진, 2017; 윤소영, 2016; 이향숙·신원우, 2016; 이호길, 2016; 정영금·윤소영, 2014). 최근에는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 여가를 즐기고, 혼자 여가를 즐기는 사람의 비중이 높아지면서(문화체육관광부, 2016), 혼자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 특히 급증하는 1인가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전체 가구의 5% 미만을 차지했던 1인

가구는 해를 거듭하며 빠르게 증가해 2016년 기준 1인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유형 중 27%이상에 달하며 그 비율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통계청, 2017).

다인가구 삶에서는 직업적 활동과 가정생활이 주를 이루고, 이를 제외한 시간에 개인적 발전이나 여가를 즐기게 되지만, 1인가구의 삶은 직업적 활동과 개인생활로 양분되므로 여가를 통해 많은 관계를 맺고 시간을 보낸다. 이런 점에서 1인가구는 여가를 통한 만족이나 관계형성, 행복 등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여가시장에서의 1인 가구원의 영향력이 커지고, 여가활동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인식되면서 1인 가구의 여가활동에 대해 주목한 연구들도 다수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미혼취업자의 여가시간 및 영향요인에 대해 연구한 안수미와 이기영(2012)의 연구, 청년세대 일인가구의 여가활동 및 가족가치관을 다인가구와 비교한 우민희, 이명진과 최선훈(2015)의 연구, 도시지역 1인가구 중고령자의 여가활동유형과 우울수준에 대해 연구한 강은나, 김혜진과 김영선(2017)의 연구 등이 있다. 이러한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여가활동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1인 가구 내 특정 세대나 집단을 세분화하여 탐구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1인 가구의 삶의 모습은 연령, 세대 등의 구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1인 가구의 삶을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1인가구가 갖는 내부적 이질성을 고려해야 한다. 1인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한 반정호(2012)의 연구에서는 1인가구를 성과 연령, 소득수준과 취업상태에 따라 유형화하였는데, 청년 및 장년층에서는 주거불안이 심화되어 나타났고, 노인층의 경우 고용사정 악화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소비지출패턴을 군집분석의 방법으로 분석한 성영애(2013)의 연구에서는 청년층, 중장년층, 노인층 1인 가구의 소비패턴을 유형화하였는데, 공통적으로 나타난 주거비 지출형을 제외하고 세대별로 다른 소비패턴을 보였다. 청년층에서는 다양한 활동지향형, 중장년층에서는

식료품비 지출형, 노년층에서는 보건비지출형의 특징이 나타났다. 이와 같이 1인가구의 생활특성은 연령집단에 따른 차이를 보여 1인 가구는 내부적으로 인구사회학적 기준에 따라 다양한 집단으로의 재분류가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행복과 여가의 영역에서 세대 혹은 연령별 비교연구는 주요한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1인가구의 여가활동과 그 행태를 세대별로 비교 분석하고, 여가행태와 행복의 관계를 탐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1인 가구의 세대별 여가활동 행태에 대해 파악하고, 세대별로 어떤 여가관련 요소들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는 것이다. 연구의 결과는 새로운 여가활동주체로 나타난 1인 가구의 여가활동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1인 가구의 증가로 대변되는 새로운 가구구조 변화에 발맞춰 행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정교화된 여가설계 및 정책개발을 위해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행복의 영향요인으로서의 여가의 역할

삶의 질과 행복을 높이는 데는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여가적 관점에서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조사하였다.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여가와 행복의 관계를 밝힌 아래의 연구 결과에서 여가와 여가만족, 그리고 여가활동의 하위 요소들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김창원(2015)의 연구에서는 직장인들의 여가활동 참여에 따른 여가만족이 심리적 행복감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구하였다. 연구 결과 여가활동 참여에 따른 심리적 행복감이 삶의 질의 하위 요인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

가만족이 삶의 질의 하위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삶의 질과 행복수준을 높이는 여가가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년기에 경험하는 여가만족도는 행복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류승아·김경미·최인철, 2011). 즉 중년기에 경험하는 여가만족도는 주관적 행복감과 수면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여가활동이 심리적 건강과 행복감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가참여는 노인의 행복감 증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갖는다. 강수택과 정철규(2015)의 연구에서는 여가활동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여가만족은 심리적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생활 만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들의 신체활동 참여가 노년기 삶을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영위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밝히고 있다.

전 세대를 대상으로 여가활동이 국민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구한 이명우 외(2016)의 연구에서는 개인이 참여하는 여가유형에 따라 여가만족 및 행복에 차이가 있으며, 비교적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여가를 즐기는 사람의 여가만족도와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 및 기타활동에 참여는 여가만족과 별개로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가활동 요인 중 여가시간이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세대의 여가 인식, 활동 그리고 행복의 관계에 대해 탐구한 윤혜진, 김영문과 김은희(2016)의 연구에서는 여가-노동 인식, 여가활동 유형, 세대가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가유형의 경우 휴식활동과 비교해 스포츠 참여, 문화예술 참여 등의 참여형 여가활동이 행복감 증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노동 인식에 있어서는 여가를 선호하는 사람일수록 행복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대별 행복감을 비교하였을 때는 Y세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행복감을 가졌다.

2. 새로운 여가 트렌드 : '1인 여가'

문화체육관광부(2016)의 '2016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전체 여가활동 동반자 유형 중 혼자서 여가를 즐긴다는 사람이 59.8%로 나타나 혼자 여가를 즐기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5-19세의 미성년자와 20대의 경우 70% 이상이 혼자 여가를 즐기는 것으로 나타나 '혼자 즐기는 여가'가 여가시장에서의 새로운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혼자 여가를 즐기는 '혼여족'의 등장에 따른 이들에 대한 관심과 그들의 여가문화 특성에 대한 연구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박지남과 천혜정(2012)의 청년 세대의 '나 홀로 여가' 문화에 대한 연구에서는 나홀로 여가족의 급증을 설명하기 위해 혼자 여가를 즐기는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개인면접을 실시하였다. 그들은 경제적 불안정과 경쟁적인 사회 환경에서 겪는 정서적 허기를 홀로 즐기는 여가생활을 통해 충족하며, 혼자 즐기는 여가는 효율적인 라이프스타일의 한 방식으로 여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한 대인관계는 네트워크를 이용한 비대면적 방법을 통해 보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홀로 여가' 문화는 청년 세대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박휴경, 원영신과 조은영(2014)은 남성 노인의 혼자 하는 등산 활동과 노년 삶의 의미의 관계를 인터뷰를 통해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열정적인 활동 중간에 '혼자 즐기는' 시간에 대한 욕구, 적은 경제적 부담, 시간 사용 등의 이유로 혼자 등산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가참여자들에게 등산활동은 마음치유를 통해 자기초월을 돕고 자기성장을 돕는 긍정적 역할로서 인식되었다. 또한 독신여성의 여가체험에 대해 연구한 김이정(2009)의 연구에서는 30~40대 독신여성 4명을 인터뷰하여 독신여성이 여가체험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흥미, 해방감과 자유로움은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을 밝혔다. 이상의 연구들에서는 공통적으로 1인 여가가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새롭게 등장한 '나 홀로 여가'는 1인 가구의 급증과 연결되어 나타난 현상이나, 1인 가구관련 연구는 소비와 주거 관련 연구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며 여가활동, 특히 여가행태 전반에 대해 조사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선행 연구들 중 최경은과 윤주(2013)의 1인가구 여가활동 분석 및 대응정책 연구에서 1인가구 여가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 1인가구 중 혼자 여가를 즐기는 사람의 비율은 79.8%로 아주 높게 나타나 1인 가구의 여가와 '혼자 즐기는 여가'가 여가의 영역에서 상당히 중요한 관심대상으로 다루어져야 함을 시사하였다. 1인가구의 여가생활 만족도는 2.55점으로 전체 응답자의 만족도와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주요 여가활동으로는 TV시청(59.6%)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여가생활 불만족 이유로는 전체 응답자가 시간부족을 가장 많이 응답한 것과 다르게 경제적 부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세대별 1인가구의 생활실태

세대는 동시대에 출생하여 동일한 역사문화권을 가진 공동운명체 집단으로 동일한 생애주기 단계에서 동일한 역사적 사건을 경험하며(Karl Mannheim, 1952), 공유된 경험을 바탕으로 유사한 가치관을 공유하는 동년배 집단이다(이은희 외, 2015). 한국의 세대구분은 한국전쟁 이후 출생이수가 급증한 베이비붐 세대와 베이비붐 이전, 이후 출생 세대, 그리고 그들의 자녀 세대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강상경, 2012; 김희정·천혜정, 2016).

베이비붐 이전 세대는 해방전쟁을 경험한 현재 한국사회의 고령자 집단이며 교육에 대한 낮은 투자와 혜택을 받은 세대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1955년부터 1963년까지의 출생자로 전체 인구의 14.6%를 차지하는 거대 인구집단이다. 그들은 한국 근대화의 시작 속에서 가난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경험한 세대이며 향후 고령사회의 핵심집단으로 기대되고 있다(강

소랑·최은영, 2016). 베이비붐 이후 출생자 집단인 X세대는 베이비붐 세대 이후부터 그들의 자녀세대인 에코세대 이전까지의 출생자 세대로 기성세대가 이해하기 어려운 세대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베이비붐 다음 세대로 인터넷을 사용한 정보 획득에 익숙한 세대이다(김미령, 2011). 정치적으로는 청소년기에 민주화를 경험하였으며 청년기 급속도의 경제발전과 외환위기를 겪었다.

베이비붐의 자녀 세대로, 1979년부터 1992년까지의 출생자 집단인 에코세대는 Y세대로도 불리며, 소속감과 생활의 자극, 원만한 인간관계, 재미와 즐거움, 자기성취, 사회적 명예, 성취감 등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김우성·허은정, 2007). 그러나 사회진출시기 신자유주의적 경제 폐해를 경험하면서 안정적인 사회진입의 어려움을 겪는 세대이기도 하다(김희정·천혜정, 2016). 한국 청년세대에 포함되는 24세 이하의 청소년 집단은 청소년기본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으로 한국 청년세대 중에서도 저연령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1인 가구의 생활실태를 출생년도에 따라 세대별로 비교분석한 기존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지만, 강은나와 이민홍(2016)의 세대별 1인가구의 현황과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청년 1인가구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독립한 집단과,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1인가구를 형성하여 생활하는 집단으로 나타나며 다인가구에 비해 높은 만성질환과 우울, 자살생각률을 보였다. 중년 1인가구의 경우 미혼과 이혼으로 인한 1인 가구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낮은 취업률과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건강과 관련해서는 신체·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노년 1인가구는 독거노인을 둘러싼 생활 전반적 열악함을 확인할 수 있다.

1인가구의 현황을 분석하여 기술한 이여봉(2017)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연구에서는 비자발적으로 형성된 청년층 1인가구, 자녀 교육을 위해 가족과 분리되어 가정역할을 수행하거나, 사회적으로 낙오하여 단순노무직 종사율이 높은 중

년의 1인 가구, 배우자와의 사별을 경험하고, 신체적 노화와 사회적 관계망의 약화로 사회에서의 고립과 단절의 위험을 가지는 노년의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강조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6년 9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17개 시·도(제주시 및 세종시 포함)의 만 15세 이상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체육관광부의 「2016년 국민 여가활동조사」를 원자료로 활용하였다. 이중 분석의 대상이 되는 1인가구원은 원자료 중 가구원 수를 '1'로 표기한 응답자 중 신체 활동을 포함한 여가활동이 가능한 연령(윤소영, 2016)인 2016년 기준 만 83세까지의 응답자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전체 원자료의 10,602명 중 1인 가구에 해당하는 1,144명이며, 이는 원자료의 조사대상자 중 10.8%에 해당한다. 김우성과 허은정(2007), 김희정과 천혜정(2016)의 연구를 참고하여 청소년 세대(만 15~23세) 74명, 에코세대(만 24~37세) 288명, X세대(만 38~53세) 154명, 베이비붐세대(만 54~61세) 104명, 노년세대(만 62~83세) 524명의 다섯 세대로 분류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측정도구

본 연구는 1인 가구의 세대별 여가활동 행태를 분석하고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여가적 요인들을 밝히기 위해 여가여건, 여가자원, 여가참여, 여가태도, 여가만족도, 일-여가 균형 정도, 주관적 행복수준을 주요 분석변수로 설정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지역규모, 학력, 경제활동여부)은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특성	구분	빈도(%)					
		전체 (N=1,144)	청소년(15~23세) (N=74)	예코(24~37세) (N=288)	X(38~53세) (N=154)	베이비붐(54~61세) (N=104)	노년(62~83세) (N=524)
성별	남	492 (43.0)	40 (54.1)	189 (65.6)	93 (60.4)	45 (43.3)	125 (23.9)
	여	652 (57.0)	34 (45.9)	99 (34.4)	61 (39.6)	59 (56.7)	399 (76.1)
학력	중졸이하	507 (44.3)	4 (5.4)	7 (2.4)	13 (8.4)	42 (40.4)	441 (84.2)
	고졸	360 (31.5)	64 (86.5)	92 (31.9)	82 (53.2)	51 (49.0)	71 (13.5)
	대졸이상	277 (24.2)	6 (8.1)	189 (65.6)	59 (38.3)	11 (10.6)	12 (2.3)
지역 규모	읍면지역	343 (30.0)	13 (17.6)	51 (17.7)	36 (23.4)	21 (20.2)	222 (42.4)
	중소도시	411 (35.9)	36 (48.6)	118 (41.0)	65 (42.2)	45 (43.3)	147 (28.1)
	대도시	390 (34.1)	25 (33.8)	119 (41.3)	53 (34.4)	38 (36.5)	155 (29.6)
경제활동 여부	예	691 (60.4)	28 (37.8)	260 (90.3)	142 (92.2)	87 (83.7)	174 (33.2)
	아니오	453 (39.6)	46 (62.2)	28 (9.7)	12 (7.8)	17 (16.3)	350 (66.8)

여가여건은 여가활동을 하는 데 주어진 시간과 비용의 조건을 파악하기 위한 변수로, 평일 여가시간과 월평균 여가비용, 여가시간과 비용에 대한 충분도(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여가자원은 문화여가관련 시설 이용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변수로 공공시설 충분도(7점 척도)와 공간산업 만족도(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여가참여는 여가참여의 지속성과 다양성을 확인하기 위한 변수로 여가 활동에 대한 지속적 참여여부, 1년 동안 참여한 여가활동(총 85가지)의 개수로 측정하였으며 세대별 여가행태 비교를 위해 85가지 전체 여가활동을 유형별(문화예술관람활동, 문화예술참여활동, 스포츠관람활동, 스포츠참여활동, 관광활동, 취미오락활동, 휴식활동, 사회및기타활동)로 분류하였다. 여가 태도는 여가에 대한 인식으로 여가활동이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긍정적 효과 인식(7점 척도), 여가 활동이 삶의 필요적 요건인지에 대한 필요성 인식(7점 척도)이다. 여가 만족도는 전반적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7점 척도)이며 일-여가의 균형 정도(1=일에 집중, 4=균형, 7=여가에 집중)는 7점 척도로 숫자가 클수록 여가지향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행복 수준은 본 연구의 종속변수로, 주관적인 현재의 행복수준(10점 척도)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계분석 프로그램은 SPSS Statistics 24이며 세대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성별, 학력, 지역규모, 경제활동여부를 1인가구 전체와 세대별로 빈도를 살펴보았다. 여가활동 특성의 세대별 비교를 위해 여가여건(평일여가시간, 평일시간충분도, 월평균여가비용, 여가비용충분도), 여가자원(공공시설충분도, 공간산업만족도), 여가참여(여가참여개수), 여가태도(여가필요성인식, 여가긍정효과인식), 여가만족(여가만족도), 일-여가균형도와 행복수준의 각 변수들에 대한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주요한 연구목적인 세대별 여가활동행태의 파악 및 비교를 위해 여가참여변수 중 지속적 참여여부와 여가활동유형 참여개수를 범주화하여 교차분석하여 X²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세대의 여가활동유형별 참여수를 비교하기 위해 유형별 여가활동 참여수에 대한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세대별 차이를 확인한 여가특성이 행복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포함한 여가활동 특성을 독립변수로, 연구의 종속변수인 주관적 행복

수준에 대해 회귀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여가활동유형 별 참여에서 나타나는 세대별 차이를 회귀분석에서도 검증하기 위해 1인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 회귀 분석에서는 전체 여가유형에 대한 참여개수를, 세대 별 회귀분석에서는 여가활동유형을 8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단, 회귀분석에 들어갈 독립변수들 중 명목변수인 성별, 지역규모, 학력, 경제활동 여부, 지속적 참여여부의 경우 각 명목변수들에 대한 더미변수를 만들어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1인가구의 세대별 여가활동특성

1인가구의 여가활동특성을 세대별로 비교한 결과 (표 2), 여가활동특성에는 세대 간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1인 가구의 생활실태, 소비

유형 등에서 세대간 차이가 나타났다고 밝힌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1인 가구의 여가활동특성에서는 여가비용충분도, 공공시설충분도, 공간산업만족도, 여가필요성인식, 여가만족도를 제외한 여가여건, 여가참여, 여가태도와 일-여가균형정도, 주관적 행복수준에서 세대 간의 차이를 보였다. 경제활동여부의 영향이 큰 여가여건의 경우 학업과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세대, 예코세대, X세대, 베이비붐세대에서는 평일여가시간이 노년세대에 비해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예코세대, X세대, 베이비붐 세대의 시간 충분도가 청소년세대, 노년세대와 비교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비용의 충분도에 있어서는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월평균여가비용에서는 집단 간의 차이가 분명하였다. 예코세대에서부터 노년세대로 이동하면서 보이는 여가비용의 차이에서 세대별 경제활동참여율과 소득수준의 차이가 여가비용지출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 1인가구의 세대별 여가활동 특성 비교

(N=1,144)

구분	M(SD)					F-value	
	청소년(15~23세) (N=74)	예코(24~37세) (N=288)	X(38~53세) (N=154)	베이비붐(54~61세) (N=104)	노년(62~83세) (N=524)		
여가여건	평일여가시간	3.37 _a (1.57)	3.09 _a (1.48)	3.24 _a (1.76)	3.35 _a (1.57)	5.20 _b (2.53)	66.802 ***
	평일시간충분도	4.76 _b (1.16)	4.42 _a (1.19)	4.56 _{a,b} (1.13)	4.70 _{a,b} (1.17)	5.46 _c (1.56)	45.975 ***
	월평균여가비용*	12.49 _b (10.11)	18.54 _c (22.70)	17.82 _c (16.55)	14.88 _{b,c} (17.59)	7.53 _a (8.26)	30.502 ***
여가자원	여가비용충분도	4.35 (1.15)	4.41 (1.18)	4.34 (1.21)	4.67 (1.07)	4.46 (1.20)	1.438
	공공시설충분도	4.23 (1.19)	4.43 (1.27)	4.13 (1.26)	4.13 (1.15)	4.15 (1.31)	2.702
	공간산업만족도	4.54 (1.09)	4.78 (1.14)	4.55 (1.11)	4.47 (1.10)	4.67 (0.050)	2.251
여가참여	여가참여개수	18.11 _d (9.45)	19.91 _c (8.76)	15.79 _c (6.38)	13.96 _b (5.71)	10.98 _a (4.29)	96.971 ***
여가태도	여가필요성인식	5.43 (1.01)	5.52 (0.95)	5.29 (0.91)	5.39 (0.95)	5.30 (0.91)	3.152
	여가긍정효과인식	5.53 _{a,b} (0.98)	5.72 _b (0.87)	5.42 _a (0.87)	5.50 _{a,b} (0.94)	5.41 _a (0.87)	5.981 ***
여가만족	여가만족도	4.57 (0.88)	4.57 (1.12)	4.47 (1.13)	4.53 (1.17)	4.64 (1.11)	0.854
	일-여가균형정도	4.07 _b (1.00)	3.86 _{a,b} (1.18)	3.94 _{a,b} (1.21)	3.71 _a (1.32)	4.53 _c (1.26)	21.260 ***
	행복수준	6.82 _{a,b} (1.76)	6.95 _b (1.54)	6.44 _a (1.55)	6.77 _{a,b} (1.64)	6.66 _{a,b} (1.52)	3.062 *

*p<.05, **p<.01, ***p<.001

* 단위 : 만 원

a,b,c,d,e : Duncan 사후검정의 동질적 부분집합

여가 자원에서는 세대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공공시설충분도와 공간산업 만족도의 전 세대의 평균이 각 4.22(중위수 4), 4.66점(중위수 5)으로 여가 자원에 대해서는 전 세대에서 대체로 보통~만족의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 참여개수에 있어서는 노년세대, 베이비붐세대, X세대, 청소년세대, 에코세대 순으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에코세대의 여가에 대한 관심과 자원의 투자가 다른 세대에 비해 특징적으로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가태도에 있어서는 X세대의 여가의 필요성과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고, 에코세대가 가장 높았으며, 베이비붐세대와 청소년세대는 중간 수준이었다. 일-여가 균형정도에서는 균형정도인 4점을 기준으로 할 때 경제활동에 참여비율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 에코 세대, X세대가 비교적 일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세대는 다소의 여가 중심적 경향을, 노년세대에서는 세대 중 가장 여가중심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수준에 있어서는 X세대가 10점 중 평균 6.44점으로 가장 낮은 행복수준을 보였으며, 에코세대가 6.95점으로 가장 높은 행복수준을 보였다. 베이비붐세대와 청소년세대, 노년세대는 중간 수준이었다.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여가활동특성과 행복수준의 세대별 차이는 경제활동과 관련된 여가 특성과 여가활동참여가 행복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게 하였다.

여가활동의 지속적 참여여부를 세대별로 비교한 결과(표 3), 세대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X세대의 지속적 참여가 42.9%로 전 세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노년세대의 지속적 참여는 25.2%로 가장 낮았다.

2. 1인가구의 세대 간 여가활동유형별 참여수준의 차이

1인가구의 세대 간 여가활동유형별 참여수준을 비교한 결과(표 4, 표 5), 8가지 여가유형 중, 휴식활동을 제외한 7가지 여가유형에서 세대별 참여수준의 차이를 보였다.

문화예술관람활동 참여에 있어서는 노년세대와 베이비붐세대에서 비교적 낮은 참여를, 에코세대와 청소년세대에서의 높은 참여를 보여 세대 간 차이가 나타났으며 문화예술참여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스포츠 관람과 참여에 있어서는 역시 에코세대가 가장 높은 참여를 보이고 있었으며, 노년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참여가 비교적 낮았다. 관광활동의 경우, 에코세대와 청소년 세대가 다른 세대와 비교해 높은 참여를 보였다. 사회 및 기타활동에서도 에코세대와 청소년세대가 비교적 많은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유형에 따른 참여에서 나타난 세대 간 차이는 유형별 참여수의 빈도분포 비교를 통해 그 차이를 조금 더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 문화예술관람활동에 한 번도 참여해 보지 않은 노년 세대의 높은 비율과, 청소년세대와 에코세대의 높은 참여도를

〈표 3〉 1인가구의 세대별 여가활동 지속적 참여여부

구분	빈도(%)					X ²	
	청소년(15~23세) (N=74)	에코(24~37세) (N=288)	X(38~53세) (N=154)	베이비붐(54~61세) (N=104)	노년(62~83세) (N=524)		
지속적참여	예	31 (41.9)	116 (40.3)	66 (42.9)	37 (35.6)	132 (25.2)	30.815***
부	아니오	43 (58.1)	172 (59.7)	88 (57.1)	67 (64.4)	392 (74.8)	

*p<.05, **p<.01, ***p<.001

〈표 4〉 1인가구의 세대별 여가활동유형에 따른 참여수준

구분	유형수*	M(SD)						F-value
		전체 (N=1,144)	청소년(15-23세) (N=74)	एको(24-37세) (N=288)	X(38-53세) (N=154)	베이비붐(54-61세) (N=104)	노년(62-83세) (N=524)	
문화예술관람	8	0.74 (1.06)	1.45 _c (1.10)	1.55 _c (1.22)	0.85 _b (1.07)	0.41 _a (0.66)	0.24 _a (0.57)	117.478***
문화예술참여	7	0.22 (0.51)	0.38 _b (0.79)	0.41 _b (0.60)	0.18 _a (0.41)	0.10 _a (0.36)	0.13 _a (0.43)	17.877***
스포츠관람	4	0.59 (0.77)	0.72 _c (0.79)	1.07 _d (0.95)	0.79 _c (0.76)	0.55 _b (0.67)	0.36 _a (0.46)	69.881***
스포츠참여	18	0.86 (1.33)	1.45 _c (1.78)	1.80 _d (1.80)	0.90 _b (0.94)	0.66 _b (0.90)	0.29 _a (0.59)	82.705***
관광	11	2.16 (1.92)	2.54 _{b,c} (2.00)	2.89 _c (2.10)	2.36 _b (2.06)	2.22 _b (1.85)	1.64 _a (1.59)	22.955***
취미오락	19	3.40 (2.37)	5.01 _d (2.92)	5.10 _d (2.48)	4.06 _c (1.85)	3.49 _b (1.82)	2.01 _a (1.43)	137.942***
휴식	9	3.68 (1.44)	3.43 (1.67)	3.72 (1.76)	3.77 (1.61)	3.66 (1.36)	3.68 (1.16)	0.749
사회및기타	9	2.95 (1.38)	3.14 _{b,c} (1.55)	3.36 _c (1.57)	2.86 _{a,b} (1.33)	2.87 _{a,b} (1.27)	2.73 _a (1.22)	10.692***

p<.05, ** p<.01, *** p<.001

* : 각 유형에 해당하는 활동수를 말함.

a,b,c,d : Duncan 사후검정의 동질적 부분집합

〈표 5〉 1인가구의 세대별 여가활동유형에 따른 참여 수 비교

유형	구분	빈도(%)					X ²
		청소년(15-23세) (N=74)	एको(24-37세) (N=288)	X(38-53세) (N=154)	베이비붐(54-61세) (N=104)	노년(62-83세) (N=524)	
문화예술관람	0개	13 (17.6)	34 (11.8)	67 (43.5)	69 (66.3)	428 (81.7)	454.262***
	1개	31 (41.9)	149 (51.7)	62 (40.3)	29 (27.9)	75 (14.3)	
	2개	19 (25.7)	50 (17.4)	14 (9.1)	4 (3.8)	16 (3.1)	
	3개이상	11 (14.9)	55 (19.1)	11 (7.1)	2 (1.9)	5 (1.0)	
문화예술참여	0개	57 (77.0)	187 (64.9)	129 (83.8)	96 (92.3)	470 (89.7)	107.587***
	1개	8 (10.8)	86 (29.9)	23 (14.9)	6 (5.8)	42 (8.0)	
	2개이상	9 (12.2)	15 (5.2)	2 (1.3)	2 (1.9)	12 (2.3)	
스포츠관람	0개	35 (47.3)	91 (31.6)	62 (40.3)	57 (54.8)	394 (75.2)	232.650***
	1개	26 (35.1)	106 (36.8)	63 (40.9)	37 (35.6)	125 (23.9)	
	2개이상	13 (17.6)	91 (31.6)	29 (18.8)	10 (9.6)	5 (1.0)	
스포츠참여	0개	27 (36.5)	69 (24.0)	62 (40.3)	58 (55.8)	400 (76.3)	327.493***
	1개	21 (28.4)	86 (29.9)	56 (36.4)	28 (26.9)	98 (18.7)	
	2개	13 (17.6)	56 (19.4)	28 (18.2)	15 (14.4)	24 (4.6)	
	3개이상	13 (17.6)	77 (26.7)	8 (5.2)	3 (2.9)	2 (0.4)	
관광	0개	9 (12.2)	37 (12.8)	29 (18.8)	19 (18.3)	172 (32.8)	107.533***
	1개	18 (24.3)	48 (16.7)	35 (22.7)	25 (24.0)	100 (19.1)	
	2개	16 (21.6)	57 (19.8)	27 (17.5)	21 (20.2)	105 (20.0)	
	3개	12 (16.2)	39 (13.5)	27 (17.5)	17 (16.3)	78 (14.9)	
	4개	6 (8.1)	43 (14.9)	11 (7.1)	8 (7.7)	44 (8.4)	
취미오락	0-1개	6 (8.1)	15 (5.2)	9 (5.8)	15 (14.4)	204 (38.9)	416.946***
	2-3개	18 (24.3)	60 (20.8)	57 (37.0)	39 (37.5)	260 (49.6)	
	4-5개	26 (35.1)	106 (36.8)	56 (36.4)	36 (34.6)	47 (9.0)	
	6개이상	24 (32.4)	107 (37.2)	32 (20.8)	14 (13.5)	13 (2.5)	
	0-1개	5 (6.8)	28 (9.7)	7 (4.5)	3 (2.9)	11 (2.1)	
휴식	2-3개	36 (48.6)	112 (38.9)	72 (46.8)	47 (45.2)	209 (39.9)	31.388***
	4개이상	33 (44.6)	148 (51.4)	75 (48.7)	54 (51.9)	304 (58.0)	
	0-1개	9 (12.2)	36 (12.5)	26 (16.9)	13 (12.5)	74 (14.1)	
사회및기타	2-3개	38 (51.4)	121 (42.0)	81 (52.6)	54 (51.9)	319 (60.9)	39.051***
	4개이상	27 (36.5)	131 (45.5)	47 (30.5)	37 (35.6)	131 (25.0)	
	0-1개	9 (12.2)	36 (12.5)	26 (16.9)	13 (12.5)	74 (14.1)	

p<.05, ** p<.01, *** p<.001

주 : 색이 있는 부분은 20% 이상의 응답을 보인 문항

비교했을 때, 다양성과 개방성의 사회적 분위기에서 성장한 청소년과 에코세대의 높은 문화적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포츠 관람과 참여 등에서 나타나는 노년세대의 참여하지 않은 비율이 높은 것은 노년세대의 건강문제에 따른 신체활동의 제약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시간과 비용의 여건이 중요한 관광활동의 경우, 에코세대의 높은 참여율을 확인할 수 있어 에코세대의 높은 여가참여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거의 모든 여가활동유형에서 일관성있게 나타났던 노년세대의 참여가 낮은 경향이, 관광활동에서는 다소 감소하여 노년 세대 내에서는 다른 활동과 비교하여 관광활동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취미와 오락에 있어서는 연령이 낮은 세대일수록 높은 참여도를 보였으며, 사회 및 기타 활동에 있어서는 2~3개 수준에서 노년세대의 높은 참여율을 확인

할 수 있다. 세대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여가활동참여의 특성들은 그들의 삶에서 축적된 교육, 생활상의 각기 다른 경험들이 그들의 생활여건적 요소들과 복합적으로 맞물려 여가활동으로 이전되어 나타났다.

3. 1인가구의 여가특성이 주관적 행복수준에 미치는 영향

1인 가구 내에서 세대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여가활동 특성과 참여는 그들의 경험과 생활여건에 많은 부분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의 분석에서는 여가와 행복의 관계에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여가요인들과, 여가행복 측면에서의 세대별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1인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여가특성이 주관적 행복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1인가구의 여가특성이 주관적 행복수준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1인가구 전체 (N=1,144)		
	SE	β	t
(상수)	0.367		3.983***
성별**	0.088	-.057	-2.024*
인구통계적 특성	0.096	-.057	-1.944
지역중소도시	0.105	.029	0.931
지역읍면	0.111	.016	0.486
학력고졸	0.127	.025	0.705
학력대졸	0.100	.044	1.402
경제활동여부**	0.022	-.065	-1.964
여가여건	0.040	-.001	-0.043
평일여가시간	0.000	.018	0.638
평일시간충분도	0.036	.151	5.544***
월평균여가비용	0.036	.089	30.83**
여가비용충분도	0.041	.074	2.571*
여가자원	0.006	.056	1.799
공공시설충분도	0.088	.055	2.057*
공간산업만족도	0.065	.034	0.872
여가참여	0.068	.078	1.995*
여가참여개수	0.042	.296	9.830***
지속적참여여부**	0.038	.077	2.524*
여가태도			
여가필요성인식	0.042	.296	9.830***
여가긍정효과인식	0.038	.077	2.524*
여가만족도			
일-여가균형정도			

Adjusted R² = .270 F = 24.518***

*p<.05, **p<.01, ***p<.001

** : 각 변수의 기준집단은 성별-여성, 경제활동여부-미참여, 지속적참여여부-아니오.

회귀분석결과 다양한 여가특성들이 1인가구의 행복수준을 높이는 영향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에서는 남성과 비교했을 때 여성의 행복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여가여건 중에서는 비용 충분도가, 여가자원에 있어서는 시설 충분도와 공간산업 만족도가 높을수록 행복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참여에 있어서는 지속적 참여여부가 행복수준을 높이는 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여가의 긍정적인 효과를 높게 인식할수록, 여가 만족도가 높을수록, 여가 지향적 삶에 가까울수록 행복수준이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표 6>의 여가활동특성들이 행복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세대별로 비교한 결과는 다음의 <표 7>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복수준에 대한 여가활동특성들의 세대별 회귀분석결과, 세대별로 행복에 미치는 여가특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청소년세대의 회귀분석결과 문화예술 참여활동 참여, 여가 필요성 인식, 일-여가의 균형이 행복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참여활동이 행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문화예술참여활동의 경우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듯 청소년 세대의 미참여 비율

<표 7> 세대별 1인가구의 여가특성이 주관적 행복수준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청소년(15-23세) (N=74)			एको(24-37세) (N=288)			X(38-53세) (N=154)			베이비붐(54-61세) (N=104)			노년(62-83세) (N=524)			
	SE	β	t	SE	β	t	SE	β	t	SE	β	t	SE	β	t	
(상수)	1.879			0.964			1.142			1.692			0.577			
인구 통계 특성	성별	0.438	-.052	-0.420	0.200	-.026	-0.414	0.262	-.078	-0.935	0.425	-.079	-0.612	0.160	.009	0.211
	지역중소도시	0.494	.093	0.660	0.186	-.085	-1.431	0.252	-.106	-1.312	0.385	-.022	-0.192	0.155	-.103	-2.237*
	지역읍면	0.620	.085	0.628	0.246	.065	1.056	0.278	-.113	-1.482	0.509	-.122	-0.973	0.148	.041	0.858
	학력고졸	0.946	.305	1.653	0.537	.024	0.145	0.392	.159	1.258	0.404	-.086	-0.696	0.188	-.007	-0.170
	학력대졸	1.164	.341	1.879	0.529	.046	0.284	0.425	.197	1.473	0.615	.123	1.060	0.393	.025	0.646
여가 여건	경제활동여부	0.412	.125	1.095	0.289	-.128	-2.299*	0.443	.125	1.624	0.458	.019	0.183	0.138	.067	1.571
	평일여가시간	0.202	.090	0.528	0.063	.040	0.652	0.075	-.023	-0.269	0.125	-.003	-0.026	0.028	-.100	-2.154*
	평일시간충분도	0.233	.170	1.112	0.082	-.023	-0.367	0.106	.001	0.013	0.159	-.013	-0.112	0.062	-.204	-0.503
여가 자원	월평균여가비용	0.000	-.259	-1.498	0.000	-.049	-0.852	0.000	-.007	-0.089	0.000	.014	0.133	0.000	.122	2.938**
	여가비용충분도	0.171	-.071	-0.638	0.076	.139	2.387*	0.092	.057	0.786	0.166	.060	0.547	0.052	.178	4.317***
참여	공공시설충분도	0.218	-.019	-0.131	0.073	.155	2.556*	0.094	.139	1.825	0.160	.079	0.699	0.051	.018	0.412
	공간산업만족도	0.238	-.016	-0.109	0.083	.092	1.495	0.107	.034	0.448	0.159	-.058	-0.546	0.062	.072	1.635
	지속적참여여부	0.410	.087	0.756	0.176	.036	0.648	0.225	.026	0.365	0.369	.062	0.572	0.149	.086	2.018*
	문화예술관람활동	0.252	.252	0.114	0.084	.064	0.959	0.114	-.113	-1.438	0.285	.057	0.499	0.119	-.028	-0.644
	문화예술참여활동	0.260	.260	-2.167*	0.150	-.077	-1.315	0.278	.029	0.388	0.514	-.064	-0.574	0.147	.029	0.707
태도	스포츠관람활동	0.387	.387	0.309	0.114	-.060	-0.864	0.169	-.136	-1.652	0.300	-.208	-1.700	0.144	-.079	-1.819
	스포츠참여활동	0.156	.156	-1.033	0.059	.090	1.287	0.137	-.036	-0.433	0.215	.133	1.131	0.111	-.020	-0.463
	관광활동	0.141	.141	1.295	0.052	.013	0.180	0.066	.210	2.418*	0.109	-.035	-0.286	0.044	.082	1.761
	취미오락활동	0.111	.111	1.431	0.044	-.050	-0.708	0.070	-.046	-0.554	0.111	-.069	-0.559	0.051	.004	0.093
	휴식활동	0.158	.158	-1.067	0.059	-.036	-0.525	0.083	-.008	-0.092	0.139	.085	0.742	0.053	-.005	-0.120
일-여가 균형정도	사회및기타활동	0.208	.208	0.768	0.076	.090	1.174	0.089	.005	0.066	0.159	.164	1.333	0.054	-.046	-1.054
	여가필요성인식	0.347	.403	2.032*	0.129	.013	0.166	0.171	.179	1.800	0.255	-.077	-0.523	0.096	-.022	-0.390
	여가긍정효과인식	0.365	-.168	-0.827	0.144	.110	1.345	0.187	.051	0.483	0.272	-.056	-0.362	0.098	.129	2.287*
여가만족도	0.286	-.034	-0.240	0.087	.267	4.191***	0.115	.432	5.137***	0.168	.357	2.961**	0.062	.285	6.305***	
일-여가균형정도	0.235	.311	2.343*	0.080	.061	0.999	0.095	-.060	-0.817	0.150	.205	1.699	0.055	.062	1.343	
Adjusted R ² = .355		Adjusted R ² = .269			Adjusted R ² = .429			Adjusted R ² = .203			Adjusted R ² = .270					
F = 2.608**		F = 5.324***			F = 5.599***			F = 2.047**			F = 8.733***					

*p<.05, **p<.01, ***p<.001

(77%)이 높게 나타났고, 참여 활동내용은 춤과 무용, 전통예술 배우기, 글짓기 및 독서토론 등으로 나타난 점으로 보아, 학생들의 문화예술참여활동이 대개 학업을 위한 교육적 목적의 활동 참여로 나타난 비자발적 참여의 한계가 아닐까 추측한다. 또한 청소년 세대의 문화예술참여활동 한 번 이상 참여한 집단과 미참여 집단의 행복수준을 비교한 결과, 한 번 이상 참여 집단의 행복수준 평균은 6.41점, 미참여 집단은 6.95으로 참여 집단의 행복수준이 더 낮았다.

에코세대의 회귀분석결과는 $R^2=.269$ 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여가특성 중 시간과 비용여건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경제활동여부가 행복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때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집단이 참여 집단보다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용의 자원이 비교적 충분한 에코세대의 노동환경에서, 노동시간 및 노동강도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비용 충분도는 행복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공공시설 충분도 또한 행복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전반적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행복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에코세대의 여가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행복과도 연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X세대의 회귀분석결과는 $R^2=.429$ 의 높은 설명력을 보였으며 관광활동의 참여수준이 높을수록, 여가 만족도가 높을수록 행복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X세대의 관광활동 참여도는 다른 세대에 비해 특징적으로 높은 수준은 아니었으나, 행복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붐 세대 회귀분석결과의 설명력은 $R^2=.203$ 이었으며 다양한 여가특성 중 여가만족도만이 행복수준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노년 세대에서는 다양한 여가활동특성들이 행복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여가 여건 요소들이 많았다. 은퇴후 급격하게 늘어난 여가시간은 행복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여가비용과 충분도가 행복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였다. 지속적 참여여부 또한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여가의 긍정적 효과를 높게 인식할수록, 여가만족도가 높을수록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청소년세대, 예코세대, X세대, 베이비붐세대, 노년세대 등으로 세대로 구분하여 세대별 여가특성을 비교하고, 여가특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1인 가구의 여가행태를 세대별로 비교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1인가구의 여가행태가 행복에 영향을 주며 세대별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여가특성이 다르다는 것도 밝혔다.

청소년 세대는 경제활동 참여비율이 적고, 학업활동이 중요한 세대로 비용과 시간의 여가 여건이 많지 않은 집단이지만, 비교적 다양한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여가활동의 지속성이 높아 향후 청소년 세대의 사회진출에 따라 활발한 여가소비 및 여가향유를 기대하게 하였다. 활동 유형에서는 문화예술관람, 스포츠 관람 및 참여, 취미오락과 사회 및 기타활동의 참여수준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문화예술참여, 스포츠 관람 및 참여에 있어서는 비교적 저조했다. 여가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을수록, 일-여가의 균형에서 여가중심적일수록 행복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코 세대는 전 세대 중 가장 많은 여가에 대한 관심과 활동반경을 보여주는 1인가구 내 핵심적인 여가향유주체이다. 여가 특성에서는 경제활동 참여로 인해 적은 여가시간 사용과 높은 여가비용 지출을 보였고, 여가 참여에 있어서는 가장 다양한 참여를 보이며 여가의 긍정적인 효과도 비교적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활동유형별로는 다양한 유형에서 높은 참여수준을 보였으며, 특히 문화예술 관람활동과 스포츠 관람 및 참여활동, 관광활동 등에서 활발한 참여를 보였다.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경제활동에 참

여하지 않는 집단이 높은 행복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가비용이 충분할수록, 공공시설이 충분할수록, 전반적 여가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행복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X세대는 1인 가구 세대 중 중년층에 해당하는 연령집단으로 청년층인 에코세대처럼 대부분 경제활동에 참여하며 시간과 비용의 여건도 에코세대와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그들의 여가활동 행태는 에코세대와 많은 차별성을 보였다. 여가참여 수준에서의 다양성은 전 세대 중 중간 수준이었으며, 여가의 긍정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일-여가 중 일 집중적 경향을 보여 에코 세대에 비해 낮은 여가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행복수준은 전 세대 중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관광활동참여와 여가만족도가 높아짐에 따라 행복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기에 접어들면서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에코세대와 X세대에 비해 적어진 베이비붐 세대는 시간과 비용의 자원 확보가 비교적 쉬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가여건에서 에코세대나 X세대와 비교하여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또한 취미오락 및 관광활동을 제외한 여가활동유형에서 미참여 인원이 많아 은퇴 이전시기에 충분한 여가에 대한 관심을 형성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여가특성 중 여가만족도만이 행복수준에 영향을 미쳤다.

노년 세대는 그들의 생활배경과 신체 및 경제적 조건으로 보았을 때 시간적 여건이 충분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가참여에 가장 많은 제약조건을 가지는 집단이다. 노년 세대는 여가 여건적인 부분에서 가장 많은 시간자원을 가지면서도 가장 적은 여가비용을 지출하였으며, 여가참여에 있어서도 낮은 다양성과 지속성을 보이고 있다. 활동유형에 있어서는 휴식과 사회활동을 제외한 전 영역에서 가장 저조한 참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수준에는 여가시간, 여가비용, 비용의 충분도, 지속적 참여, 여가의 긍정적 효과 인식, 여가만족도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1인 가구의 여가행태와 여가특성에서 세대

간 차이가 나타났으며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세대별로 다르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제시하게 되었다. 따라서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여가정책 및 산업을 고려할 때, 세대의 특성에 따른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선, 여가에 대한 높은 관심과 활동을 보이는 청년 집단인 청소년 세대와 에코세대의 경우 여가활동을 지속하고 이를 통해 행복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 세대에게는 여가필요성 인식을 높이고 그들의 삶에서 여가의 균형을 맞추어 주는 것이 필요하며, 에코 세대는 시간자원 확보와 여가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중년기 이후로 접어드는 X세대와 베이비붐, 노년 세대에 대한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여가의 지속적 참여를 통한 여가경력(leisure career) 관리의 필요성이다. 시대적으로 한국사회의 전쟁과 경제발전이 한창인 시기에 생애주기 초기와 청소년기를 겪으면서 여가에 대한 경험이나 관심이 적었던 X세대 이전 시대들은 이전의 경험과 역력이 현재의 여가활동과 행태에 밀접하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즉 X세대와 베이비붐, 노년 세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낮은 참여정도는 여가의 지속적 참여와 여가경력 형성에 대한 지원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비슷한 수준의 여가여건을 갖춘 에코 세대와 X세대의 여가행태, 특히 여가참여와 태도의 차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현재 여가활동 참여와 행복수준에 대한 관계를 살펴보면, X세대에게는 관광활동의 활성화와 여가만족도를 높이는 방안 등을 통해 그들의 행복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제안되며, 베이비붐 세대는 전반적인 참여와 만족도를 높여 노년기 진입 이후까지 여가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제안된다. 그리고 노년 세대는 여가활동과 관련된 비용이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여가비용의 제약을 덜 수 있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며, 신체적 제약을 극복하면서도 다양한 참여를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

한 여가컨설팅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안된다. 결국 1인 가구의 여가활동과 여가행태를 통해 행복한 삶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각 세대별로 특성화된 전략과 방법을 통해 수요를 파악하거나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시장세분화와 수요 파악을 통한 여가시장(leisure market) 형성이나 수요자 맞춤형 정책 설계가 절실히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본 연구는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단 본 연구는 기존에 조사된 원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실제 1인가구만이 갖는 생활환경, 예를 들어 원가족과의 관계나 1인가구 생활 특성 등에 대한 문항이 별도로 분석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1인 가구의 여가행태와 행복과의 관계에 대해 세대별로 세분화하여 1인가구의 특성과 가정환경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연구가 제안된다.

참고문헌

- 1) 강상경(2012). 삶의 만족도와 관련요인의 세대 간 차이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한 베이비 붐 세대와 이전 및 이후 세대 간 비교. *사회복지연구*, 43(4), 91-119.
- 2) 강소량·최은영(2016). 베이비붐 세대와 이전 및 이후 세대 간 비교분석: 가계자산소득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32(2), 1-30.
- 3) 강수택·정철규(2015). 신체활동 참여 노인들의 여가만족이 심리적 행복감 및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학회지*, 13(3), 145-156.
- 4) 강은나·김혜진·김영선(2017). 도시지역 1인가구 중고령자의 여가활동 유형과 우울수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7(2), 184-215.
- 5) 강은나·이민홍(2016). 우리나라 세대별 1인가구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34), 47-56.
- 6) 김미령(2011). 베이비붐세대, X세대, 준고령세대

- 여성의 삶의 질 구성요소 비교연구. *노인복지연구*, (51), 7-34.
- 7) 김세진·강은나(2017). 도시지역 거주 노인의 여가시설 이용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여가시설 이용 노인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7(3), 110-138.
- 8) 김우상·허은정(2007). 베이비붐세대, X세대, Y세대 소비자들의 소비관련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비교. *소비문화연구*, 10(4), 31-53.
- 9) 김윤정·이상진(2017). 베이비붐 세대의 일, 가족생활,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7(2), 671-680.
- 10) 김이정(2009). 독신여성들의 여가체험 이해.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9(1), 359-365.
- 11) 김종순·오세숙·윤소영(2016). 20-40대 직장여성의 일과 여가 그리고 행복의 관계. *여가학연구*, 14(4), 67-85.
- 12) 김창원(2015). 직장인들의 여가활동 참여에 따른 여가만족이 심리적 행복감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구미시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의용과 학대학원 스포츠테크노 산업학과 석사학위논문*.
- 13) 김희정·천혜정(2016). 1차 베이비붐세대, 2차 베이비붐세대와 에코세대간 일 가치관, 여가태도 및 은퇴준비행동 비교. *여가학연구*, 14(3), 17-41.
- 14) 류승아·김경마·최인철(2011). 중년기 여가생활이 행복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7(4), 415-434.
- 15)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6 국민여가활동조사.
- 16) 반정호(2012). 1인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변화. *노동리뷰*, (85), 55-67.
- 17) 박지남·천혜정(2012). 청년 세대의 '나 홀로 여가 문화'. *여가학연구*, 10(2), 87-105.
- 18) 박휴경·원영산·조은영(2014). 남성노인의 홀로하는 산행의 경험과 의미. *한국여가레크레이션학회지*, 38(3), 41-53.
- 19) 성영애(2013). 군집분석을 통해 살펴본 1인가구의 연령대별 소비지출패턴. *소비자학연구*, 24(3), 157-181.

- 20) 안수미·이기영(2012). 미혼취업자의 여가시간 및 영향요인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3), 109-132.
- 21) 우민화·이명진·최선태(2015). 청년세대 일인가구의 여가활동 및 가족가치관에 관한 연구: 청년세대 다인가구와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16(1), 201-231.
- 22) 윤소영(2016). 고령자 대상 여가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40(4), 1-13.
- 23) 윤소영(2010). 행복의 본질적 요소로서 여가경험에 대한 접근. 여가학연구, 8(1), 45-60.
- 24) 윤혜진·김영문·김은희(2016). 세대별 여가 인식, 활동 그리고 행복의 관계. 관광레저연구, 28(12), 353-370.
- 25) 이국화·최인철(2018). 일하고 놀까? 놀고 일할까?: 행복, 관계 그리고 여가 우선 선택. 여가학연구, 16(1), 29-53.
- 26) 이명우·홍윤미·윤기웅(2016). 여가 활동이 국민 행복에 미치는 영향: 여가만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30(2), 264-287.
- 27) 이어봉(2017). 1인 가구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의포럼, (252), 64-77.
- 28) 이은희·김경자·이성림·유현정·차경옥·이영애·이준영(2015). 세대별 가계경제구조 비교분석. 소비자정책교육연구, 22(2), 197-227.
- 29) 이향숙·신원우(2016). 노인의 여가활동 유형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산업연구, 16(3), 157-165.
- 30) 이호길(2016).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불안이 여가활동과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호텔경영학연구, 25(4), 163-180.
- 31) 정영금·윤소영(2014). 베이비부머 세대의 여가활동 특성과 여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8(3), 61-77.
- 32) 최경은·윤주(2013). 1인가구 여가활동 분석 및 대응정책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보고서.
- 33) 통계개발원(2017). 국민 삶의 질 2017. 통계개발원 조사보고서.
- 34) 통계청(2017). 장래가구추계: 2015~2045년.
- 35) Karl Mannheim(1952). The problem of Generation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276-322.

- 투 고 일 : 2018년 06월 01일
- 심 사 일 : 2018년 06월 29일
- 게재 확정일 : 2018년 08월 06일